

# 건강기능식품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허위 · 과대광고 주의...제품 포장지 자세히 살펴야

“건강성 기능식품이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의약품  
을 대체한다고 광고하면 허위 · 과대광고로 보면 된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날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29일 안내했  
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  
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유사 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  
다.

식약청 허가나 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  
식품’ 표시나 도안을 할 수 있다.

또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인삼 · 홍삼제품은 원기회복과 면역력 증진,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며, 글루코사민  
함유 제품은 연골의 구성성분으로 이 부분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프로  
폴리스 함유 제품은 항균작용, 항산화 작용을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나 건강기능 식품정  
보란(www.hfoodi.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  
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 · 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또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  
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 · 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식약청 김병태 건강기능식품팀장은 “특히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 데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인정을 받고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  
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표시가  
없는 유사건강식품을 무분별  
하게 구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  
칠 수 있다.

품 목	기능성내용
인삼제품	①원기회복 ②면역력증진 ③자양강장에 도움
홍삼제품	①원기회복 ②면역력증진 ③자양강장에 도움
EPA 및 /또는 DHA함유제품	〈EPA함유제품〉 ①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②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DHA함유제품〉 ①두뇌, 망막의 구성성분 ②두뇌영양공급에 도움
효모제품	①영양의 불균형 개선 ②영양공급원 ③건강증진 및 유지 ④신진대사 기능
유산균함유제품	①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②장내 유해미생물의 억제 ③장내 연동운동 ④정장작용
클로렐라제품	①단백질 공급원 ②체질개선 ③영양보급 ④핵산 및 단백질, 엽록소, 섬유소등 성분 함유 ⑤건강증진 및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제품	①필수지방산의 공급원 ②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③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④생리활성물질 함유
알로에제품	①장운동에 도움 ②면역력 증강기능 ③위와 장건강에 도움 ④피부건강에 도움(알로에 베라) ⑤배변활동에 도움(아보레센스)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①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 ②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줌 ③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프로폴리스 함유제품	①항균작용 ②항산화작용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http://www.kfda.go.kr))나 건강기능 식품정보란([www.hfoodi.net](http://www.hfood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꿀벌 실종에 아이스크림 업체 '곤혹'

## 하겐다즈 "전체 식품업계의 골칫거리"

앞으로는 하겐다즈와 배스킨라빈스 31 등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제품을 더 이상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꿀벌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재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17일 하겐다즈 등 꿀지의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꿀벌이 줄어들면서 아이스크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티 피엔 하겐다즈 브랜드팀장은 "벌집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꿀벌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 가운데 다수가 꿀벌을 통해 만드는 제품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하겐다즈의 모기업 네슬레가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60여가지 맛 가운데 약 40%가 꿀벌을 매개로 한 식물의 수분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다.

문제는 '균집붕괴현상'(CCD)이다. 세계적으로 벌집이 사라지는 현상에 붙여진 말로 지난해 미국 전역 35개주를 포함, 전세계 4개 대륙에서 CCD가 발생했다.

피엔은 "꿀벌 감소는 아이스크림 공급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맛을 위해 꿀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식료품업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겐다즈는 CCD 현상 연구를 위해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에 매년 25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